

보도 일시	2022. 6. 23.(목) 09:00	배포 일시	2022. 6. 23.(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박홍석 (044-203-2743)

##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반영

- 6. 24. 국립극단에서 3차 공청회 개최, 공연예술계 요청 사항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6월 24일(금) 오후 4시, 국립극단(소극장 판)에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공청회’를 열고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는 1차(2. 14. 연극계), 2차(5. 25. 연극계 / 5. 26. 무용, 음악, 뮤지컬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는 기무사 수송대가 사용했던 현재 부지를 2010년에 이관받은 이후 예술 창작부터 매개, 향유까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2013년 국립극단이 실시한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연장 수요를 분석해 건립 방향과 세부 공간 조성(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2014년)와 국방부에서 문체부로의 국유재산 유상관리 전환(2016년), 민자 적격성 검토(2018년), 국회 한도액 승인(2020년) 등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업 계획을 고시했다. 이렇게 가시화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 궤도에 올랐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예술계 현장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에 1, 2차 공청회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공연장 조성에 대한 현장 수요와 의견을 수렴했다. 공연예술계에서는 극장 공간 수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사업 추진방식 변경과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3차 공청회에서는 극장 조성 방향, 국가 재정 투입 계획 등 지난 공연예술계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에 다양한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추가로 마련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공연공간을 확충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공청회 및 사업 개요



□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6. 24.(금) 16:00 / 국립극단(소극장 판)
- (순서)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일 시		주요 내용	비 고
16:00 ~ 16:05	5'	· 인사	
16:05 ~ 16:35	30'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설명	
16:35 ~ 17:25	50'	· 사업 관련 질의 응답 진행	
17:25 ~ 17:30	5'	· 종합 정리 및 마무리	

□ **사업 개요**

- (위 치)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 일대
- (사업기간) 2015년 ~ 2026년 (공사기간 : 2023년 7월 ~ 2026년 12월)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기간, 각종 인허가 등에 따라 사업 기간 지연될 수 있음
- (사업규모) 부지면적 7,904㎡(약 2,390평), 연면적 41,507㎡(약12,570평)
- (총사업비) 124,407백만 원
  - 공사비 114,032, 설계비 4,302, 감리비 4,386, 각종 조사비 등 1,687
- (사업 방식) BTL방식\*(문화예술공간)
  - \*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 건립,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가 임대료(20년간)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
- (주요시설) 공연시설, 복합문화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근생시설 등

구 분	주 요 시 설
공연시설	- 대극장(1,200석)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에 적합하게 계획 - 중극장(500석) 연극, 중·소규모 공연, 콘서트 등에 적합하게 계획 - 소극장(100석, 200석, 300석) 연극, 소규모 공연, 실험극, 독주회 등 블랙박스 형태로 200석과 100석은 단독 또는 합쳐서 사용, 창작을 위한 다양한 객석 형태와 무대를 구상
복합문화시설	- 전시실, 도서관, 자료실, 창작공간 등
업무시설	- 운영기관 및 국립극단 사무실, 민간 임대 공간 등
판매 및 근생시설	- 식당, 카페, 판매점 등 민간 수익시설

\* 시설의 종류 및 면적(객석수)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적격성 조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으로 면적 증가 어려움